

“진리세계에서 영원한 안락 누리라”

■ 진제 종정예하 하안거 결계 법어

一得永得 如如不變
微念不起動
大寂滅場中 遊戲自在
正眼宗師 悟后行履

하나를 얻으면 길이 얻어서 여여하여 변치 않음이요, 티끌만큼의 생각도 일어나지 않음이라. 큰 적멸의 가운데에서 자재하게 높이 정안종사들의 깨달은 후의 행리로다.

금일은 갑오년 하안거 결계일이니. 사부대중은 각자 자리에서 자기사(自己事)를 마치는 데 게으름이 없어야 함이로다. 우리가 사바세계에서 인간의 몸을 얻은 것은 다른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요, 오로지 생사(生死)를 요달하여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에서 영원한 안락을 누리고자 함이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생사를 요달하여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에서

영원토록 낙을 누리겠는가.

이미 화두(話頭)가 있는 이는 각자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가?”하고 이 화두를 들고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해야 함이로다. 일상생활 가운데 하루에도 천번 만번 챙기되 한 번 챙기고 간절한 의심을 쭉욱 밀어주고 또 챙기고 밀어주어 화두의심한 생각이 흐르는 시냇물처럼 끊어짐이 없게끔 챙겨야 됴이로다.

화두의심을 끊임없이 밀어주라는 이유는 참의심이 발동이 걸리도록 하기 위함이니, 시골 방앗간에서 아침에 방아를 돌리는데 처음에는 잘 걸리지 않다가도 꾸준히 방아를 돌리다 보면 문득 시동이 걸려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방아를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므로 혼신을 다해 화두의심을 챙기다보면 문득 참의심이 일어 화두의심 한 생각에 푸욱



진제 종정예하는 지난 13일 팔공총림 동화사 통일대전에서 열린 갑오년 하안거 결계법회에서 각자의 화두를 타파해 영원한 안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울곧게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동화사=신재호 기자

빠져서 사물을 봐도 보는 감각이 없고 소리를 들어도 듣는 감각이 없게 됴이로다. 그렇게 일념삼매(一念三昧)에 빠져 한 달이고 일 년이고 십 년이고 시간이 흘러가는 줄 모르고 흐르고 흐르다가 문

득 사물을 보는 참나에 소리를 듣는 참나에 화두가 박살이 남과 동시에 자기의 참모습이 밝은 대낮과 같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됴이로다.

그러면 그간의 모든 불조(佛

祖)께서 베풀어 놓으신 팔만사천 법문들을 한 꼬챙이에 꿰어버리게 됴이니, 누가 어떤 법문을 물어오더라도 하더라도 전광석화(電光石火)로 척척 바른 답을 내놓게 됴이로다. 이로써 천불만조사

(千佛萬祖師)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너도 대도인(大道人)이요 나도 대장부(大丈夫)가 됴이니 게으름 없이 혼신의 정진(精進)을 다할지이다.

▶6면에 계속

종단차원 ‘세월호 희생자’ 추모재 연다

“생명의 가치 우선하는 사회 만들어가자”

5월20일 조계사에서 유가족 초청 ‘아픔 함께’ 추모문화제 형식으로

여객선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긴 가운데 조계종이 오는 20일 오후7시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조계사 마당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모제’를 개최한다.

총무원 기획실은 지난 13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종단 차원에서 준비한 세월호 희생자 추모제 일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모제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유가족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고인들의 넋을 기리는 천도의식과 국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추모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지도자는 물론 불자 유가족의 초청도 추진되고 있어 의미를 더하고 있다. 기획국장 남전스님은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하는 것은 물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부대중의 참회와 발원을 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참사와 관련 수습이 완료된 이후에도 종단 차원에서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종단은 사고당일인 4월16일 공화문 점등식을 비롯해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범요식 등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실종자 무사귀환을 발원했다. 또 진도 팽목항에 긴급구호봉사대를 급파해 자원봉사에 동참했으며, 전국 사찰에 지침을 통해 오전 10시 사시기도와 함께 유가족을 위

한 성금 모금, 분향소 운영에 왔다. 연등회 당일 모인 성금만 1000여 만 원에 이르며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전달할 예정이다.
허정철 기자 hjc@bulgyo.com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지난 12일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생명의 가치를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천명했다.

종교지도자협의회 세월호 사고관련 성명 ‘6·4 공명선거’ 당부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7대 종교 지도자들이 생명의 가치를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천명했다. 또 정부가 사고 원인과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지난 12일 세월호 관련 성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종지협은 “실종자들이 한시라도 빨리 가족의 품에 올 수 있도록 구조와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시스템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명의 가치가 최우선으로 존중받으며, 원

칙이 지켜지는 사회,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철저하게 공공의 이익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가 우리가 구현해 나가야 할 사회”라며 “국민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생명의 가치가 우선하는 사회를 구현하는 길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종지협은 “6월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맞아 공명선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종파를 떠나 국가와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종지협은 국민들에게 △주인의식을 갖고 투표에 참여할 것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따져보고 선택할 것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태규 기자 che11@bulgyo.com

지면안내

SNS 인기몰이 불교카툰
‘근근한 뉴스’ 창간 4면

동아시아 인문네트워크로
‘세계불교학계’ 주도한다 10면



서울 봉은사·광주 동원사
‘유이수계법회’ 봉행 14면

“한국불교역사는 2000년이다”
총회의원 제정스님 ‘기고’ 15면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 모 재

- 일시 불기2558(2014)년 5월 20일(화) 오후 7시
- 장소 조계사 대웅전 마당
- 내용 천도의식(도량계, 진후무, 화청) 추모문화행사 추모의 등 올리기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세월호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참회발원을 위한 추모제에 불자들의 동참을 바랍니다.